

19년 GS 2순환(이수진 노무사) 7회 모의시험 채점평

I. 제 1문 - 설문(1)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문제제기

- 문제에서 근기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명시하였음에도, 경영해고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2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 충족여부까지 검토하려고 한 답안이 몇몇 있었음(문제에서 쟁점을 명시해서 물어보는 경우, 그 이외의 쟁점은 논하지 않는 것이 좋음).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도산회피설(부실하게 실시한 경우가 꽤 많았음)과 장래위기대처설 2개만을 제시한 답안이 매우 많았음. '장래 경영위기 대처'에 관한 판례가 '합리적 필요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판례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려면 합리적 필요설을 따로 목차로 빼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함. + 도산회피설->합리적 필요설->장래의 경영위기 판례의 흐름을 답안에 적시해준 경우 확실히 답안 인상이 좋았음.
-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예외 법리로 이해하고 서술한 답안이 많았음. 즉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예외'의 경우로 콜텍사례를 제시한 경우가 많이 있었음. 굳이 원칙-예외로 하고자 한다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경우'임. 콜텍사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역시 전체 법인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임(이 점 정확히 체크 要). + 콜텍사례의 판례는 비판이 많은 판례이고, 특수한 사실관계의 Case이므로, 일반 법리로 제시하기보다는 '콜텍사례' 혹은 '사건'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현금성 판례).
- 사안 적용에서 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라고 한 후, 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범위와 관련해 콜텍 사례 판례에 맞추어 사안 포섭을 한 답안이 몇몇 있었음. 그러나 콜텍사례 판례 자체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정도(장래 위기대처설)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전체 경영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A사 전체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먼저 언급한 후 ①을 ②에 포함시키는 논리로 사안적용을 전개해야 함.

II. 제 1문 - 설문(2) : 근로자대표와 협의

- 문제제기 단계에서 1) 甲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아님에도 협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 50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각 나누어서 정확히 구분적시해준 경우가 많지 않았음(문제제기는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 要).
- ★★ 근기법 제24조 제3항의 취지를 적지 않은 답안이 많았음. 적었다고 하더라도 판례 문구

가 정확한 답안은 많이 않았음. 이 사례에서는 일반론 실시에서 '취지'를 반드시 먼저 실시해 주어야 함. 꼭 체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형식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면 근로자 대표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짧고 간단함에도 완벽하게 현출한 답안이 거의 없었음.
- 50일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영상 해고의 효력 여부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실시한 경우가 거의 없었음. 특히, 50일 기간의 의미 + 기간 준수가 효력 요건은 아닌 점 +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경영상 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경영상 해고는 유효하다."는 점을 누락한 경우가 많음(특히, **"경영상 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부분). 따라서 사안 적용에서도 근기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답안이 대부분이었음.
- 노조 자격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리를 실시하고 이를 사안 적용까지 해 준 경우가 매우 드물었음.
- ★★★ **甲노조가 곧바로 근로자대표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가 의외로 많았는데, 사례의 주요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甲노조는 비록 과반수노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 있는 점'을 논증해낼 수 있도록 사안적용부분을 꼭 다시 리뷰해주시길 바람.**
- A회사가 누적적자가 계속되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한 경영상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준 답안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점수가 후하게 나감).

III. 제 2문 : 해고시기의 제한 및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쟁점

1. 해고시기의 제한 쟁점 관련

- '해고 시기의 제한'에 관한 쟁점을 놓친 경우가 소수 있었음.
- ★★★ **근기법 제23조 제2항 부분과 관련하여, 판례 법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정확하게 현출한 답안이 거의 없었음.** 이 부분의 경우 판례를 구조화하여 암기하는 것을 추천함(개인적으로 암기하기 까다로운 판례라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외워주셨으면 함. ① 업무상 부상o 치료중 o but 휴업x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② 업무상 부상o 휴업o but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인정x -> 근기법제23조제2항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 특히,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 법리가 핵심인데도 이를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실시한 경우가 많았음.
- ★★ 위반의 효과로서, 동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언급한 답안이 매우 소수였음.
- 근기법 제84조 일시보상 및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근기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생각해주었으면 함. 이 부분을 검토한 경우가 거의 없었음.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쟁점

-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만 서술하고,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답안이 몇몇 있었음.

- ★ 대부분의 답안이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통상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 근거법리(절차적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을 서술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음.
- 丁에 대한 통상해고 효력과 관련한 사안 적용에서, 대부분의 답안들이 그저 법리 자체를 반복해서 다시 쓰는 정도로 검토하였음. 사안적용에 적극 활용할 만한 사실관계가 부족하나, 적어도 B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B사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도는 서술하는 것이 좋아 보임.

IV. 채점자의 편지

➤ 27기 이지혜 노무사

- 2기 마지막 수업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홀가분한 기분이 드실 것 같네요. 잠깐의 휴지기 후에 다시 3기를 시작해야하니 무엇보다 진이 빠졌던 만큼 리프레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2기 첫시험과 비교해서 갈수록 답안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보면 “하다보면 된다”는 말을 증명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느신 만큼 앞으로의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고답안과 괴리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는 부분을 최대한 쥐어짜서 적어내는 노력들을 보고 있으면 한때 수험생이었던 입장에서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는 단지 써보고 첨삭을 받는 것에 그친다기 보다는 시험장과 유사한 긴장감을 연습하고 그 날과 가장 유사한 컨디션을 몸에 익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들입니다. 완벽한 컨디션을 찾기는 어렵기에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연습기회를 실천처럼 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얼마 안 남았다는 불안이 공부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평정심 잃지 말고 꾸준히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기마음에 들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고지가 눈앞에!

➤ 27기 장민국 노무사

- 제가 채점한 답안지는 대체적으로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2기 마지막 회차라 그런지 초반보다 답안지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 느낌이 들어서 채점하면서 좋았습니다. 3기들어가기 전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하시고 3기진입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다들 잘 쓰는 쟁점의 경우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판례현출도 및 포섭에서 치밀하게 하는지 여부)가 0.xx 점씩 쌓여서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메인 위주로 공부하시되, 디테일한 부분은 신경을 전혀 안쓰시는 것보단 매번 시험을 칠때마다 챙긴다는 생각으로(책에 표시하거나 가필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2기 동안 시험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파이팅하세요!